

구약논단

제15권 1호(통권 31집) 2009년 3월 31일

임 현준(예은교회) 역대에 나타난 히스기야상 114

본 논문의 목적은 역대기의 히스기야상에 역대기사가의 신학적 경향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떠한 히스기야상이 창출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대기의 히스기야상에 어떤 신학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역대기사가의 히스기야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대기에 나타난 히스기야 상(像)

임 현준 | 예언교회

1. 들어가는 말

역대기 사가는¹⁾ 포로 이후, 왕조가 멸망당하고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에 독특한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썼다.²⁾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신명기 역사의 자료인 열왕기하를 사용하고 있으며,³⁾ 그의 히스기야 역사 상당 부분이 대본인 열왕기하의 히스기야 역사와 일치한다. 그러나 역대기 사가가 대본을 무조건 베낀 것은 아니

1) 역대기 역사(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 문제와 연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피력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로 다음을 참조하라. 임 태수, “역대기의 다윗상,” 『신학사상』 제49집(1985년 여름), 239-240쪽;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총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년 2월), 11-14쪽; J. M. 마이어스, 「역대기상 국제성서주석 12-1권(한국신학연구소 옮김)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0), 11-14쪽. 원제는 Jacob M. Myers, I Chronicles, The Anchor Bible, Vol. 12, Second Editio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1). 필자는 역대기 역사가 페르시아 후기부터 헬레니즘 시대 초기(주전 330년 전후)에 형성된 초기 문서층과 헬레니즘 시대 초기부터 안치오크스 4세(주전 175-163년) 이전 시기에 형성된 후기 문서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중 편집설을 지지하며, 역대기 사사가 제사장 그룹에 속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임 태수, 『릿글』, 239-241쪽.

3) 참조. 김 영진, “역대기 사가의 역사 기술방식,” 『신학논단』 제43집(2006년 2월), 8쪽

다.4) 그는 자신의 신학적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제거하거나,5) 수정해서 사용하고,6)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편집 구절을 삽입하기도 한다.7) 또한 그는 대본 외에 특수 자료를 사용하기도 한다.8) 이렇게 함으로써 역대기 사가는 열왕기하에 나타난 것과는 상당히 다른 히스기야 상을 창출하고 있다.

딜라드와9) 김 정우는10) 역대기 사가의 히스기야 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이스라엘을 재통일시킨 왕으로서의 히스기야, (2) 제 2의 다윗과 솔로몬으로서의 히스기야, (3) 응보 신학에 바탕을 둔 서술. 이들의 설명은 역대기의 히스기야 역사에서 핵심적인 주제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기의 히스기야 역사에 대한 요약 정리로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역대기의 히스기야 역사에는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 외에도 역대기 사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의미와 '레위인의 지위 고양'에 대한 관심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히스기야 역사 서두 부분(대하 29: 1-2)에는 '남 왕국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역대기 사가의 신학적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바탕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역대기 사가의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역대기의 히스기야 역사에 역대기 사가의 신학적 경향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떠한 히스기야 상이 창출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히스기야 역사 최종 본문을 비교 검토하면서 역대기의 히스기야 역

4) 역대기 사가가 사용한 자료와 그 사용 원칙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김 영진, *룻글*, 7-19쪽;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645-647쪽; Georg Fohr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r. by David Green (London: S.P.C.K, 1970), 240-246쪽. 원제는 Georg Fohr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Heidelberg: Quelle & Meyer, 1965); J. M. 마이어스, *룻글*, 51-71쪽.

5) 예를 들어, 왕하 18: 1a, 13-16, 25, 31-32, 36-37; 19: 3-7, 8-36; 20: 6-11 등.

6) 예를 들어, 왕하 18: 19-37은 대하 32: 10-19에서, 왕하 19: 3-7, 37은 대하 32: 20-21에서 변경되었다.

7) 예를 들어, 대하 29: 1; 31: 1 등.

8) 예를 들어, 대하 29: 3-36; 30장; 31: 2-19; 32: 1-8 등.

9) Raymond B. Dillard, *2 Chronicle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15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7), 228-229쪽.

10) 김 정우, 「구약통전(하)」 (서울: 이레서원, 2003), 347-348쪽.

사에 어떤 신학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히스기야 역사에 나타난 역대기 사가의 신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역대기 사가가 어떠한 히스기야 상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겠다.

2. 히스기야 역사 본문 분석

1) 히스기야의 등극(대하 28: 27 - 29: 2)

(1) 남 왕국 유다의 정통성 강조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인 유다 왕 아하스가 죽자 그 뒤를 이어, 25세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 29년간 통치하였다(대하 28: 27 - 29: 1a). 역대기의 히스기야 등극 기록에는 열왕기의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왕하 18: 1)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신명기 사가가 남북 왕국의 왕들의 통치를 병행하여 열왕기를 기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역대기 사가는 남 왕국 유다 왕들의 통치를 중심으로 하여 역대기를 기술함으로써 남 왕국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그의 신학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2) 다윗/솔로몬과의 유비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대하 29: 22). 이 구절은 왕하 18장 3절에 있는 것이다.

(3) 구체적인 묘사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을 기록할 때, 신명기 사가는 단순히 **אִמִּי**(아비/나의 아버지, 왕하 18: 2)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역대기 사가는 ‘야훼’를 뜻하는 **יְהוָה**(야)를 붙여 **אִמִּי יְהוָה**(아비아/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대하 29: 1b)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치밀하게 역사서를 기술하는 역대기 사가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2)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대하 29: 3 - 31: 21)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종교 개혁을 시작하여(대하 29: 3), 아시리아 산헤립의 침공 전에 “모든 일”을 마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대하 32: 1). 신명기 사가는 열왕기에서 히스기야의 등극에 관한 기록에 이어서, 곧바로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한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왕하 18: 4). 그러나 역대기 사가는 산당과 우상 제거에 관한 기록(대하 31장) 앞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성전을 수리하고 깨끗이 한 다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야훼께 예배드리는 장면(대하 29: 3-36)과, 유월절을 준비하고 성대하게 지키는 장면(대하 30장)을 삽입하고 있다.

(1) 성전 정화(대하 29: 3-17)

① 예루살렘 성전 제의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취한 공식적인 조치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먼저 닫혀있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으며, 성전을 성결케 하였다(대하 29: 3).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을 시작하여 그 달 십육 일에 모두 마쳤다(대하 29: 12-17).

② 다윗/솔로몬과의 유비

첫째,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를 왕위에 오른 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드린 모범적인 야훼 숭배자로 묘사함으로써, 그를 즉위 초기부터 성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솔로몬과 유비하고 있다.¹¹⁾ 둘째, 대하 29장 10절에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하여 드 브리스는 역대기 사가가 히스기야를 야훼와 언약을 맺은 새 다윗으로 간주한다고 이해한다.¹²⁾ 셋째,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갈래를 나누고 직무를 맡긴 것은(29: 11-14) 다윗과 솔로몬이 앞서 행한 것을 반영한다(대상 15: 3-24; 23 - 26장; 대하 8: 14-15).

11) Raymond B. Dillard, *윗글*, 234쪽.

12) Simon J. De Veris, “Moses and David as Cult Founders in Chronicles,” *JBL*, vol. 107, No. 4 (1988), 634쪽.

③ 응보 사상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를 버리고, 야훼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대하 29: 6-9). 그러한 맥락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자”고 역설하며(대하 29: 10), 성전 정화의 기치를 올린다.

④ 레위인들에 대한 관심

성전 정화 시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 정화 작업에 참여한다. 대하 29장 12-14절에는 성전 정화 작업에 참여한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성결케 한 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을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그것들을 성 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대하 29: 15-16). 이와 같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성전 정화 작업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도와 굶은 일을 처리하였다.

(2) 성전 재 봉헌(대하 29: 18-36)

성전 정화를 마친 후 레위인들은 성전 정화 작업이 완벽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을 왕에게 보고하였다(대하 29: 18-19). 히스기야는 대신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대하 29: 20이하). 이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대하 29: 35).

① 레위인들에 대한 관심

성전 재 봉헌 과정에서 레위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하 29장 18-19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아닌, 레위인들이 성전 정화 작업의 완료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한다. 히스기야는 예배 때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금(심벌즈)과 비파(거문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대하

29: 25-26).

대하 29장 34절에는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고 서술함으로써 성결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이었음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¹³⁾ 레위인들은 단순히 제사장들의 보조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 드리는 예배의 필수 구성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역대기 사가가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제사장들을 도와 야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제사장들의 권위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참조. 29: 4, 16, 21, 24, 31, 34). 하지만 레위인들은 “희생 제사에 참여를 통해 제사장의 지위에 바짝 다가선다.”¹⁴⁾

(3) 유월절 축제(대하 30장)

① 응보 사상

대하 30장 6-9절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온 이스라엘에 선포한 히스기야의 명령에는 대하 29장 5-10절의 성전 정화 당시에 선포한 히스기야의 말에 나타나는 응보 사상이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다.

② 레위인들에 대한 관심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예배를 드리고(대하 30: 16), 부정한 사람들에게 성결 예식을 행한다(대하 30: 17). 레위인들은 야훼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여 히스기야에게 칭찬을 받는다(대하 30: 22). 16절에서는 29장 34절에서 임시 조치였던 레위인의 제사 업무가 “모세의 율법”에 따른 더 합법적인 것으로 제시된다.¹⁵⁾

③ 온 이스라엘 사상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지킬 수

13) 윗글, 638쪽.

14) 배 희숙, “레위인을 위한 역대기의 개혁 프로그램,” 『구약논단 제21집(2006년 8월)』, 76쪽.

15) 윗글, 77쪽.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한 달 늦추었다(대하 30: 2-3).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즉 남 왕국 유다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까지 포함하는 ‘온 이스라엘’에 명령을 공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대하 30: 1, 5).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대하 30: 10). 하지만 북 이스라엘의 아셀, 므낫세, 스불론의 일부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였다(대하 30: 11-1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 태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북쪽에서 몇 사람이나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북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예배 공동체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저들을 초청했다는 사실이다.”¹⁶⁾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들은 칠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 후, 다시 이레 동안의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대하 30: 21-23).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대하 30: 25).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대하 30: 26).

④ 이상적인 통치자

유월절 행사를 이처럼 성대하게 치르기까지 왕이나 제사장 등 지배 계층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다스리는 이상적인 통치자로 나타난다.

⑤ 다윗/솔로몬과의 유비

첫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였고, 야훼께서 히스기야

16) 임 태수, “역대기사가의 통일신학,” 『신학연구』 28집(1987), 424쪽.

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대하 30: 18-20). 이 구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연상시킨다(대하 6: 12-42). 야훼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를 약속하셨고(대하 7: 14).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대하 30: 20). 둘째, 히스기야 때는 성전 재 봉헌 후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킨 다음 “온 회중이 다시 칠 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칠 일을 즐겁게 지켰다”(대하 30: 23).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봉헌하면서 2주 동안 성회를 열었다(대하 7: 8-9). 셋째, 대하 30장 26절에서 역대기 사가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서술한다.¹⁷⁾

⑥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이해

역대기사가는 성전 정화 작업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성전 정화를 마치면서, 역대기 사가는 “일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다”(대하 29: 36)고 매듭을 짓는다. 또 대하 3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유다에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야훼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대하 30장 20절에서는 “야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대하 30: 18-19)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고 서술하고 있다. 역대기 사가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관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역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강조한다.

(4) 산당과 우상 제거(대하 31장)

① 예루살렘 성전 제의

유월절 절기를 지킨 후, 히스기야는 산당과 우상 제거에 돌입하였다. 유월절 축제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17) Raymond B. Dillard, *룻글*, 229쪽; J. M. 마이어스, 「역대기하 국제성서주석 12-2권(한국신학연구소 옮김)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1), 231쪽. 원제는 Jacob M. Myers, *II Chronicles*, The Anchor Bible, Vol. 13, Second Editio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1).

돌아다니며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대하 31: 1).¹⁸⁾ 예루살렘이 유월절 전에 정화되었던 것처럼(대하 30: 14) 온 나라에서 아하스의 통치 기간부터 남아 있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었다. 신명기 사가는 왕하 18장 4절에서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라고 기록하여 산당을 한정하는 부사구를 붙이지 않았지만, 역대기 사가는 대하 31장 1절에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라는 부사구를 첨가하고 있다.

② 온 이스라엘 사상

대하 31장 1절은 역대기 사가에 의해 평행 구절인 왕하 18장 4절과 다르게 수정되었다. 문장의 주어를 보면, 왕하 18장 4절에는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남성 3인칭 단수 형태의 대명사 **אָהוּ**(후/그)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대하 31장 1절에는 3인칭 복수 형태인 **לְכָל־יִשְׂרָאֵל**(콜 이스라엘/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장의 주어로 나타난다. 이것은 역대기 사가가 유월절 축제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을 피력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③ 다윗/솔로몬과의 유비

역대기 사가의 특수 자료에 속하는 대하 31장 2-19절에서 히스기야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한 후, 제의 제도를 정비한다.

첫째,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대하 31: 2, 12-19). 이는 다윗과 솔로몬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반영한다(대상 15: 3-24; 23 - 26장; 대하 8: 14-15).

둘째, 히스기야는 왕 자신부터 솔선 수범하여 자기의 가축 때 가운데서

18) 대하 31: 1에는 왕하 18 4에 나타나는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 뱀’을 부수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신명기 사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도 구리 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 뱀을 우상으로 간주하였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에 반하여 역대기사가는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 뱀’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다(대하 31: 3). 솔로몬은 정기적으로 야훼의 제단에 번제를 드렸다(대하 8: 12-13).¹⁹⁾

④ 레위인들에 대한 관심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야훼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였다(대하 31: 4). 왕의 명령에 따라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가져왔으며, 모든 것의 십일조를 가져왔다(대하 31: 5-6). 이에 히스기야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예물과 십일조를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게 하고, 또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제사장들에게 몫을 나누어주는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대하 31: 12-14).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정화 작업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배 시에는 성가대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제는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제사장들의 몫을 나누어주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성전 창고의 감독과 예물을 분배하는 책임을 맡게 됨으로써 레위인들의 영역이 더욱 확장된다.²⁰⁾ 배 희숙은 레위인의 제사장 성물예의 참여(대하 31: 14-19)는 “레위인이 기능 확장을 통해 제사장과 동등한 지위로, 제사장과 동등한 정결 상태로 상승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이 조치로써 히스기야의 개혁은 종결된다”고 말한다.²¹⁾

⑤ 응보 사상

대하 31장 20-21절에서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고 보도한다. 이는 왕하 18장 5-7절에 근거하고 있으며, 왕국 전체를 위한 히스기야의 활동,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의 야훼에 대한 지극한

19) 참조. Raymond B. Dillard, *윳글*, 229쪽.

20) 배 희숙, *윳글*, 78쪽.

21) *윳글*, 79쪽.

헌신과 그로 말미암는 성공을 강조하고 있다.²²⁾

3) 아시리아의 침공(대하 32: 1-23)

대하 32장 1-22절에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 재위 당시에 있었던 앗시리아 산헤립의 유다 침공에 관한 기록은 이와 평행 구절인 왕하 18장 13절 - 19장 37절의 기록과 상당히 다르다. 열왕기의 많은 기록들이 역대기 사가에 의해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 또한 곳에 따라서는 역대기 사가의 특수 자료가 삽입되기도 하였다. 왕하 18장 13-16절에는 '요새화 된 유다의 모든 성읍이 앗시리아 군대에게 점령되었으며,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산헤립에게 받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역대기 사가는 이 기록을 삭제시킨 반면에, 대하 32장 1-8절에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침공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였으며, 백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했다'는 내용의 특수 자료를 삽입하고 있다. 또 왕하 18장 19-25절에 기록된 '아시리아 장군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은 대하 32장 10-15절에서 '앗시리아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로 수정되어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앗시리아 왕에게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라고 친히 이르셨다'(왕하 18: 25)는 랍사게의 말은 역대기에서 철저히 삭제되었다. 그리고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조언을 구한 일(왕하 19: 3-7)과 앗시리아의 재 위협에 관한 기록(왕하 19: 8-36)을 삭제하고, 대하 32장 20-21절에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예언자가 야훼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으며, 야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어 앗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였으며, 앗시리아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었다'고 보도한다. 이와 같이 유다 침공에 관한 역대기의 기록은 열왕기의 기록에 비해 히스기야가 미화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당하는 고통도 약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대기 사가는 열왕기의 기록에 비해 히스기야를 앗시리아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한 훌륭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으

22) J. M. 마이머스, 윗글(1991), 236쪽.

며, 유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통도 약하게 묘사하고 있다.

(1) 응보 사상

역대기 사가는 무슨 까닭으로 아시리아의 유다 침공에 관하여 이처럼 많은 부분을 열왕기의 기록과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것일까? 역대기 사가의 응보의 관점에서 볼 때,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었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대기 사가는 열왕기에 나타나는 요새화 된 유다의 여러 성읍이 점령되고(왕하 18: 3), 히스기야가 항복(왕하 18: 13-16)하는 등 이스라엘의 고난의 상황을 삭제하고, 보다 부드러운 필치로 그의 역사서를 기술했을 것이다.

(2)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이해

대하 32장 20-21절에서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와 이사야 예언자가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시리아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였으며, 아시리아 왕은 낮이 뜨거워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자식들의 칼에 맞아 죽었다”고 보도한다. 이는 유다가 아시리아를 물리친 것이 유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권능과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 다윗/솔로몬과의 유비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선물을 바친 것처럼(대하 9: 23-24), 히스기야도 선물을 받고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대하 32: 23). 솔로몬과 히스기야 두 왕 모두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²³⁾

4) 히스기야의 병(病)과 회복(대하 32: 24-26)

23) Raymond B. Dillard, *유태*, 229쪽.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어 야훼께 기도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야훼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대하 32: 24-26).

(1) 응보 사상

히스기야의 질병에 관한 기록은 평행 구절인 왕하 20장 1-11절의 기록과 많은 차이가 있다. 왕하 20장 1절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야훼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야훼께 간구하니(왕하 20: 3),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에서 회복시켜 주었으며, 히스기야의 목숨을 15년 연장시켜 주었다(왕하 20: 5-7).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사야 예언자의 신탁을 믿지 못하고 믿을만한 증거를 요구한다(왕하 20: 8). 하지만 역대기의 히스기야 역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역대기 사가가 응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내용은 히스기야에게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5) 히스기야의 영화와 죽음(대하 32: 27-33)

(1) 응보 사상

왕하 20장 17-18절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야훼의 말씀을 선포한다. 신명기 사가는 왕하 20장 12-19절에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책임이 히스기야에게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 이야기(왕하 20: 12-13)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삭제된 반면, 히스기야의 부귀영화와 치적을 묘사하는 역대기 사가의 특수 자료(대하 32: 27-31)가 삽입되어 있다. 이 구절들은 응보 사상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서술하는 것이다.²⁴⁾

24) J. M. 마이어스, 윗글(1991), 245쪽.

(2) 다윗/솔로몬과의 유비

대하 32장 27-29절은 히스기야의 많은 재산에 관해 보도하고 있다. 이는 대하 9장 13-28절의 솔로몬의 재산에 관한 보도와 대비된다. 히스기야는 또한 많은 방패를 만들었는데(대하 32: 27), 이는 솔로몬이 많은 방패를 만들었다는 보도와 대비된다(대하 9: 15-16).²⁵⁾

(3) 이상적인 통치자

신명기 사가는 히스기야의 죽음에 관해 기록하면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들었다”(왕하 20: 21)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에 비해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지냈다”(대하 32: 33)고 기록함으로써 히스기야가 온 백성의 존경을 받은 훌륭한 통치자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3. 히스기야 역사에 나타난 역대기 사가의 신학

1) 예루살렘 성전 제의

역대기에서 성전 제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역대기 사가는 옛 유다 제의 중심지에서 드리는 예배의 연속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집스럽게 역설한다.²⁶⁾ 그러한 맥락에서 역대기 사가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후대 왕들의 성전 보수 작업에 대하여 신명기 사가보다 더 자세하게 보도한다.²⁷⁾

역대기에서 히스기야는 왕의 자리에 오른 후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회복하기 위한 종교 개혁을 시행한다(대하 29 - 31장). “첫째 해 첫째 달”(대하 29: 3)에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이 한 다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야훼께 예배를 드린다(대하 29: 3-36).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도록 하고(대하 30장), 유월절 축제 후에는 축제에 참

25) Raymond B. Dillard, *룻글*, 229쪽.

26) J. M. 마이어스, *룻글*(1990), 39쪽.

27) 김 영진, “제15장 역대기역사,” 김 영진 등, 「구약성서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41쪽.

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도록 한다(대하 31장).

2) 남 왕국 유다 중심 사상

역대기 사가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종교적 활동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남 왕국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⁸⁾ 다윗 가문이 거의 끊어졌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사가에게는 이 가문과 그의 왕국이 중요하였다.²⁹⁾ 포리는 역대기가 불신한 북 왕국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내포하고 있는 남 왕국 유다가 참 이스라엘이며, 다윗 왕국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지배권을 받은 대표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³⁰⁾

역대기의 히스기야 등극 기록에는 열왕기의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왕하 18: 1)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역대기 사가가 남 왕국 유다 왕들의 통치를 중심으로 역대기를 기술함으로써, 남 왕국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그의 신학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3) 온 이스라엘 사상

역대기 사가의 역사서 「죽보 현관」(대상 1-9장)에서부터 그의 온 이스라엘 사상이 나타난다.³¹⁾ 역대기 사가는 다윗 왕조와 야훼 제의를 배반한 북 왕국의 집권자들에 대해서는 준엄한 비판을 가하고, 저들의 합법성을 인정치 않지만, 북 왕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저들이 야훼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한, 받아들여 한 형제로 맞이하고 있다.³²⁾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한 달 늦춘다(대하 30: 2-3).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명령을 공포하여, 이스라

28) D. N. Freedmann, “The Chronicler’s Purpose,”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vol. 23 (1961), 440-441쪽.

29) J. M. 마이어스, *윗글*(1990), 34-38쪽.

30) Georg Fohrer, *윗글*, 239쪽.

31) 임 태수, *윗글*(1987), 420쪽.

32) *윗글*, 424쪽.

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다(대하 30: 1, 5).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 통치하에 종교적인 측면에서 남과 북이 통일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대하 30: 1-20; 31: 1). 역대기 사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통치하에서, 한 명의 왕과 하나의 성전이라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포함하는 지리적 범주에 있어서도(대하 30: 5; 참조 대상 21: 2) 재통일되고 있다.³³⁾

한편 '남 왕국 유다 중심 사상'(반-사마리아 사상)과 그에 상반되는 '온 이스라엘 사상'이 역대기 역사서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두 사상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역대기의 중심 사상으로 강조하였다.³⁴⁾ 그러나 김 윤이는 이러한 방법에 반대하면서 다층 편집의 관점에서 역대기 역사서를 연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³⁵⁾ 그는 역대기 역사서를 '초기 역대기 사가의 편집 층'과 '후기 역대기 사가의 편집 층'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남 왕국 유다 중심 사상'(반-사마리아 사상)은 대략 페르시아 후기부터 헬레니즘 시대 초기(주전 330년 전후)에 형성된 초기 문서 층에, '온 이스라엘 사상'은 헬레니즘 시대 초기부터 안치오크스 4세(주전 175-163년) 이전 시기에 형성된 후기 문서 층에 속한 것으로 본다. 필자는 김 윤이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대기의 이중 편집을 지지한다.³⁶⁾

4) 레위인에 대한 관심

역대기 사가는 레위인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들의 지위를 고양시키려 노력하고 있다.³⁷⁾ 그러한 모습은 역대기의 히스기야

33) Raymond B. Dillard, *윗글*, 228쪽.

34) 역대기 역사서의 중심 사상으로 G. von Rad와 Martin Noth는 '남-유다 중심주의'를 강조하였고, Sara Japhet과 H. G. M. Williamson, 배 희숙 등은 '온-이스라엘 사상'을 강조하였다.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구약논단 제22집(2006년 12월)』, 81-82쪽.

35) 김 윤이, *윗글*(2006년), 80-97쪽; 참조 김 윤이, *윗글*(2005년 2월), 14-154쪽.

36) 참조 이 글의 각주 1번.

37) 배 희숙이 설명하고 있듯이, 역대기에서 두 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다윗-솔로몬과 히스기야-요시아 개혁은 대체로 레위인과 결부되어 있으며, 역대기 사가는 두 시기의 개혁을 통해 레위인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 다윗-솔로몬 시기에는 레위인이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지만 부분적으로 제사장에게 종속되고 있고, 히스기야-요시아 개혁을 통해서 제사장과의 동등한 제의 관리로 발전하게 된다. 배 희숙, *윗글*, 69-85쪽.

역사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레위인들은 성전 정화 작업에 참여하고(대하 29: 15-16), 성전 재 봉헌 예배 때에 성가대의 임무를 수행한다(대하 29: 25-26). 그리고 유월절 축제 때에는 제사장을 도와 예배를 드리고(대하 30: 16), 부정한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한다(대하 30: 17). 또한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제사장들의 몫을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대하 31: 12-14).

그러면 왜 역대기 사가는 레위인에게 이처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드 브리스는 역대기 사가가 레위인이었고 성가대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는 폰 라트(G. von Rad, 1930)와 아크로이드(P. R. Ackroyd, 1973)의 견해에 동의하면서,³⁸⁾ 역대기 사가의 우선적인 관심이 레위인들의 정통성 강조와 지위 고양에 있었다고 주장한다.³⁹⁾

한 동구는 역대기에서 레위인의 지위 고양 주제를 헬라 시대의 사회-정치적인 상황과 연관하여 고찰한다. 그에 의하면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는 일종의 성전 국가로서 대제사장이 조세 징수권을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헬라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조세 징수권을 박탈당함으로써 그 권한이 약화되었다. 거기에 고위 제사장들, 부유한 평민 귀족들, 대 토지 소유자들, 가문 수장들로 구성된 원로원(게루시아)이 새로 생겨나면서, 다시 한 번 대제사장의 권한이 제한 받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대제사장은 페르시아 시대에 누리던 권한들을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온 이스라엘의 대동 단결’과 ‘전통의 회복’을 주창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제 계급과 레위 계급간의 광범위한 연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레위인들의 지위와 명예가 크게 상승되었으며, 이와 함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도 많이 해소되었다.⁴⁰⁾ 필자는 한 동구의 이러한 관점과 방법이 적절하며, 그의

38) Simon J. De Veris, *윗글*, 636쪽. 민 경진은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레위인 관련 본문을 문학적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결과는 에스라-느헤미야서가 레위 그룹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다고 말한다. 민 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레위인,” 『구약논단 제26집(2007년 12월), 112-128쪽. 그러나 민 경진은 에스라-느헤미야서를 역대기 역사서의 일부로 보지 않고, 주전 5세기 말 경에 페르시아의 정치적 후원을 입은 레위인 그룹에서 집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 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레위계 기원: 역사적 맥락,” 『구약논단 제17집(2005년 4월), 78-100쪽.

39) Simon J. De Veris, *윗글*, 636-639쪽.

40) 한 동구, “제사장과 레위인과의 갈등과 화해,” 제70차 한국구약학회 발표(2006년 4월), 23-24쪽.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 응보 사상

역대기 사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에는 벌(고통과 환란)을 받게 되지만 선을 행할 때에는 복을 받게 된다'는 응보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⁴¹⁾ 그는 '범죄 - 고난 - 회개 - 용서'라는 신명기 사가의 역사관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응보 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 역대기에 철저히 적용시키고 있다.⁴²⁾ 그렇게 함으로써 역대기 사가는 이스라엘이 야훼께 순종할 때는 번성했지만, 불순종 때문에 야훼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교훈을 이끌어낸다.⁴³⁾ 그리고 독자들에게 다른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야훼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야훼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한다.⁴⁴⁾

역대기의 히스기야 역사는 역대기 사가의 응보 신학이 적용된 대표적인 경우이다.⁴⁵⁾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조상들의 범죄로 인한 야훼의 진노에서 기인한다고 이해하고(대하 29: 6-9), 백성들에게 야훼와 언약을 세움으로써 그의 노를 떠나게 하자고 촉구하

한 동구, "헬레니즘이 유대문화에 미친 영향," 「현상과 인식 제26집 4호(2003년 겨울), 145-149 쪽. 한 동구는 이스라엘에서 레위인의 지위 고양이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있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의 문제는 신명기 개혁운동에서 출발하며, 신명기 개혁운동의 예배의 중앙 통일화로 인하여 지방 제사장들은 중앙 제사장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중앙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명기 개혁운동의 소멸과 함께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이러한 갈등은 포로기에 접어들면 첨예화된다. 그러다가 포로 후기에 접어들면서 제사장 집단이 레위인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의 긴장이 약간 해소되었다.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레위인들은 그 대가로 십일조를 직무의 몫으로 할당받았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 통합된다. 그 후 헬레니즘의 물결로 인해 정치적 지위를 잃어가던 종교적 집단은 반-외세를 목적으로 대 통합을 시도한다. 한 동구, "포로기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구약논단 제21집(2006년 8월), 10-31쪽; 한 동구, 윗글(2006년 4월), 8-25쪽.

41) 장 일선, 「구약신학의 주제 개정·증보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340쪽.

42) Roddy L. Braun, *Chronicles, Ezra, and Nehemiah: Theology and Literary History*, VTSup 30 (Leiden: E. J. Brill, 1979), 53-56쪽.

43) Brevard S. Childs, 윗글, 644쪽.

44) R. K. 해리슨, 「구약서론(하) (박 철현/노 향규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240쪽. 원제는 Roland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9).

45) Raymond B. Dillard, 윗글, 228쪽.

면서 종교 개혁의 가치를 올린다(대하 29: 10).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가 아훼를 향한 신실한 믿음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다고 보도한다(대하 31: 20-21).

6)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이해

역대기 사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관찰한다. 인간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며 역사를 이끌고 가는 주재자이다.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 역사에서 성전 정화 작업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대하 29: 36; 30: 12, 26). 그리고 앗시리아의 산헤립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아훼께서 천사를 보내어 앗시리아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였다고 보도한다(대하 32: 20-21). 전쟁은 군사들의 무용이나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판가름난다(참조. 대하 13: 15-18; 17: 10; 20: 22-25). 역대기 사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오래된 신앙을 재삼 확인시켜 준다(출 15장; 시 2, 20, 21편; 잠 21: 31).⁴⁶⁾

7) 다윗/솔로몬과 히스기야의 유비

신명기 사가에게 다윗/솔로몬 이후 요시야가 가장 모범적인 왕이었다면, 역대기 사가에게는 히스기야가 그러하다. 역대기에 나타난 히스기야는 모범적인 아훼 경외자이고, 아훼 종교 안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다윗/솔로몬 이후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이다. 역대기 사가는 신명기 사가처럼 그를 유다 왕 가운데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왕하 18: 5)이었다고 언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대기 사가는 그의 히스기야 역사 전반에서 다윗/솔로몬과의 유비를 통해 히스기야가 다윗/솔로몬 이후 가장 모범적인 왕임을 드러내고 있다.⁴⁷⁾

46) W. S. 라솔 들, 「구약개관 (박 철현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927쪽. 원제는 William Sanford Lasor 들, *Old Testament Survey: The Message, Form, and Background of the Old Testament*.

47) 대하 29: 2; 30: 26; 히스기야 역사와 다윗/솔로몬 역사의 평행 구절들. 대하 29: 11-14/대상 15:

모지스는 역대기 사가가 히스기야를 ‘제 2의 다윗’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⁸⁾ 모지스에 의하면, 사울 - 다윗 - 솔로몬의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이다. 사울의 때는 ‘배반 시기’였고, 다윗의 때는 ‘선한 통치와 복을 받은 시기’였다. 그리고 솔로몬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희망을 주는 복을 가장 많이 누린 시기’였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종말론적인 희망은 미래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유다의 왕들은 사울이나 다윗과 비교되고 솔로몬과는 비교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모지스의 주장은 ‘히스기야와 다윗 사이’보다 ‘히스기야와 솔로몬 사이’에 유사점이 더 많다는 반론에 부딪힌다. 윌리엄슨은 역대기 사가의 히스기야가 다윗보다 솔로몬과 유사한 평행 구절이 더 많음을 논증하면서, 히스기야가 ‘제 2의 솔로몬’이라고 주장한다.⁴⁹⁾ 최근에 에델만도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⁵⁰⁾ 한편 트론티비트는 중간적인 입장에 있다. 그는 역대기 사가의 역사서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역대기 사가가 다윗과 솔로몬 둘 모두로부터 히스기야 상을 그려내고 있다고 본다.⁵¹⁾ 필자의 생각으로는, 윌리엄슨이 주장하는 것처럼 히스기야와 다윗 사이보다 히스기야와 솔로몬 사이에 유사한 평행 구절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고 둘을 분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고려할 때, 트론티비트의 견해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4. 요약과 결론

3-24: 23 - 26장; 대하 8: 14-15; 대하 30: 18-20//대하 6: 12-42; 대하 30: 20//대하 7: 14; 대하 30: 23//대하 7: 8-9; 대하 31: 2, 12-19//대상 15: 3-24; 23 - 26장; 대하 8: 14-15; 대하 31: 3//대하 8: 12-13; 대하 32: 23//대하 9: 23-24; 대하 32: 27-29//대하 9: 13-28; 대하 32: 27//대하 9: 15-16 등.

48) R. Mosis, *Untersuchungen zur Theologie des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s*, Freiburger theologisches Studien (Freiburg: Herder, 1973), 189쪽.

49) H. G. M. Williamson,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119-125쪽.

50) Diana Edelman, "Hezekiah's Alleged Cultic Centralization," *JSOT*, vol. 32, No. 4 (June 2008), 399쪽.

51) M. A. Throntveit, *The Significance of the Royal Speeches and Prayers for the Structure and Theology of the Chronicler* (Diss.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1982), 155-162쪽.

역대기 사가는 포로 후, 왕조가 멸망당하고 재건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독특한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썼다.⁵²⁾ 그는 자신의 역사서 다른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역사에서도 자신의 신학적 의도에 부합되도록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는 온 이스라엘 사상, 응보 사상, 예루살렘 성전 제의, 레위인의 지위 고양, 남 왕국 유다의 정통성 강조 등의 신학적 바탕 위에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히스기야 역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히스기야를 다윗/솔로몬과 유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 열왕기의 내용을 제거하거나 수정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집 구절을 삽입하거나 특수 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히스기야 상을 창출해 낸다. 예를 들어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산헤립에게 받쳤다는 열왕기의 기록(왕하 18: 13-16)을 삭제하고,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침공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였으며, 백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했다'는 내용의 특수 자료(대하 32: 1-8)를 삽입한다. 열왕기에서 히스기야는 야훼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고 목숨을 15년 연장시켜 준다는 예언자의 신탁을 믿지 못하고 믿을만한 증거를 요구하는 불신의 모습을 드러낸다(왕하 20: 5-8). 그러나 역대기의 히스기야 역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역대기 사가의 특수 자료인 대하 29장과 30장에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드린 모범적인 야훼 숭배자이며, 유월절을 한 달 늦추면서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자, 백성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다스리는 이상적인 통치자로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대기에는 열왕기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부정적인 모습이 제거되고 이상화된 히스기야가 나타난다. 그는 모범적인 야훼 경외자이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며, 다윗과 솔로몬을 닮은 이상적인 통치자이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역대기 사가는 독자들에게 비록

52) 앞의 3장에서 살펴본 7가지 신학 주제들 외에도, 학자들은 다양한 주제를 역대기 사가의 신학적 경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 일선은 역대기 사가의 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응보 사상, (2) 다윗 사상, (3) 예루살렘의 우위성, (4) 온 이스라엘 개념, (5) 반-사마리아 논쟁, (6) 레위 사람, (7) 성가대, (8) 제사장, (9) 성전, (10) 토라, (11) 예언자, (12) 역사 속의 신의 섭리, (13) 신앙, (14) 유다의 민족적 금지, (15) 왕권 메시아 사상, (16) 합법성의 원리, (17) 기도, (18) 거룩한 전쟁, (19) 신정론적 사상. 장 일선, 「역대기 사가의 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81), 31쪽.

현재의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잘 섬기면 야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을 고취시키고 있다.

5. 참고문헌

- 김 영진, “역대기 사가의 역사 기술방식,” 「신학논단」 제43집(2006년 2월), 7-29쪽.
- 김 영진 등, 「구약성서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구약논단」 제22집(2006년 12월), 80-97쪽.
- _____,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층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5년 2월).
- 김 정우, 「구약통전(하)」(서울: 이레서원, 2003).
- 민 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레위인,” 「구약논단」 제26집(2007년 12월), 112-128쪽.
- _____,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레위계 기원: 역사적 맥락,” 「구약논단」 제17집(2005년 4월), 78-100쪽.
- 배 희숙, “레위인을 위한 역대기의 개혁 프로그램,” 「구약논단」 제21집 (2006년 8월), 69-85쪽.
- 임 태수, “역대기의 다윗상,” 「신학사상」 제49집(1985년 여름), 239-279쪽.
- _____, “역대기사가의 통일신학,” 「신학연구」 28집(1987), 415-437쪽.
- 장 일선, 「구약신학의 주제」 개정·증보 재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_____, 「역대기사가의 신학」(한국신학연구소, 1981).
- 한 동구, “헬레니즘이 유대문화에 미친 영향,” 「현상과 인식」 제26집 4호(2003년 겨울), 132-149쪽.
- _____, “포로기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구약논단」 제21집(2006년 8월), 10-32쪽.
- _____, “제사장과 레위인과의 갈등과 화해,” 제70차 한국구약학회 발표(2006년 4월), 8-25쪽.
- 라솔, W. S. 등, 「구약개관」(박 철현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927쪽. 원제는 Lasor, William Sanford 등, *Old Testament Survey: The Message, Form, and Background of the Old Testament*.
- 마이이스, J. M., 「역대기상」(국제성서주석 12-1권)(한국신학연구소 옮김)(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0). 원제는 Myers, Jacob M., *I Chronicles, The Anchor Bible, Vol. 12, Second Editio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1).
- _____, 「역대기하」(국제성서주석 12-2권)(한국신학연구소 옮김)(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1). 원제는 Myers, Jacob M., *II Chronicles, The Anchor Bible, Vol. 13, Second Editio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1).
- 해리슨, R. K., 「구약서론(하)」(박 철현/노 항규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원제는 Harrison, Roland K.,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9).
- Braun, Roddy L., *Chronicles, Ezra, and Nehemiah: Theology and Literary History*, VTSup 30 (Leiden: E. J. Brill, 1979).
- Childs, Brevard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9).
- De Veris, Simon J., "Moses and David as Cult Founders in Chronicles," *JBL*, vol. 107, No. 4 (1988), 619-638쪽.
- Dillard, Raymond B., *2 Chronicle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15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7).
- Edelman, Diana, "Hezekiah's Alleged Cultic Centralization," *JSOT*, vol. 32, No. 4 (June 2008), 395-434쪽.
- Fohrer, Georg,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r. by David Green (London: S.P.C.K, 1970). 원제는 Fohrer, Georg,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Heidelberg: Quelle & Meyer, 1965).
- Freedmann, D. N., "The Chronicler's Purpose,"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vol. 23 (1961), 436-442쪽.
- Mosis, R., *Untersuchungen zur Theologie des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s*, *Freiburger theologisches Studien*, (Freiburg: Herder, 1973).
- Throntveit, M. A., *The Significance of the Royal Speeches and Prayers for the Structure and Theology of the Chronicler*, (Diss.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1982)
- Williamson, H. G. M.,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London: Cambridge UP, 1977).

검색어

히스기야
성전 정화
레위인
유월절
앗사리아

투고일: 2009년 1월 21일
심사일: 2009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15일

The Image of Hezekiah in 2 Chronicles

Heon-Jun Lim

Pastor at Ye-Eun Church
Hosea University Ph. 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age of Hezekiah in 2 Chronicles 28: 27 - 32: 33. The author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texts with 2 Kings 18: 1 - 20: 21. And he examines how Chronicler's theological tendencies were reflected into the history of Hezekiah in 2 Chronicles and what image of Hezekiah Chronicler shows.

Chronicler, similarly other parts of his history, describes the history of Hezekiah from the theological viewpoints that he emphasizes pan-Israelite, retribution, the cult of the Temple, raise Levites' position, orthodoxy of Judah and the likes. He also analogizes Hezekiah to David and Solomon.

As a result, though Chronicler uses 2 Kings as the source of his history of Hezekiah, he makes a very different image of Hezekiah from that of Deuteronomist. Chronicler shows us an idealized image of Hezekiah which removed his negative aspects described in 2 Kings.

In 2 Chronicles Hezekiah is a model in worshipping Yahweh, a king of the whole Israel, and a great ruler like David and Solomon. Chronicler, through this image of Hezekiah which he shows, gives his readers

eschatological hope: If they would respect Yahweh, rely on Him and serve Him best as they could, they should be saved from sufferings and the new Israel could be established.

Keywords

Hezekiah
Temple purification
Levite
Passover
Assyria

